

안동 권문의 꽃, 부산부녀회



부산부녀회 회원들이 부산종친회 신년하례회에서 권문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부산부녀회(회장 권정희) 안동권씨 종친회 중에서 부산종친회에만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부산부녀회원들은 시조 태사공 춘추항제에 매년 예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어김없이 참석한다. 분홍색 한복은 부산부녀회의 상징이 되었다. 예쁜 한복으로 단장하면 부녀회원들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 부산종친회의 꽃이자 안동권문의 꽃이다. 부녀회원들은 부산종친회 신년하례회와 정기총회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 권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전국 종친회 중 권문의 노래를 부르는 종친회는 부산종친회가 유일무이하다.

권영한 부산종친회 회장 재임하던 1992년 2월 26일 임원진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부녀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초대 부녀회장으로 권영희 세무사를 추대했다. 총무는 권춘자씨가 맡았다. 이어서 회칙을 제정했다. 각 조항에는 상호 친목과 종친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안동권씨 종친회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부산부녀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권영한 회장은 100만원, 권영희 초대 부녀회 회장은 50만원을 찬조금으로 협찬했다. 이로써 부산부녀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이 마련되었다. 첫 월례회는 창립된 지 한 달 10일 만인 4월 8일 개최

했다. 어느새 3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매월 8일 월례회를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개최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것 말고는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월 모임을 가졌다고 하니 가히 안동권문의 딸과 며느리답다. 참으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조직을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탄탄을 금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안동권문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부녀회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존경스러울 뿐이다.

창립멤버는 권영희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5명이었다. 2002년 경에는 5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 무렵 부녀회의 정체성을 다지고 좀 더 예쁘고 품격있는 모습으로 단장하기 위해 자체 기금으로 한복을 단복으로 구입하여 행사 때마다 의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부산종친회 정기총회는 물론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춘추항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부녀회의 존재도 과시하고 성심을 다해 지원하곤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초창기에는 음력 정월에는 옷놀이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나 유적지를 탐방하며 친목을



다졌다. 부녀회 산하 등산회를 만들어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는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산행을 실시하며 심신을 단련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하여 황전

제 1대: 회장 권영희(92~93) 총무 춘자	제10대: 회장 권정순(10~11)총무설화숙
제 2대: 회장 권오순(94~95) 총무 춘자	제11대: 회장 권정순(12~13)총무 다원
제 3대: 회장 권인숙(96~97) 총무 정순	제12대: 회장 권영래(14~15) 총무 쌍희
제 4대: 회장 권금선(98~99) 총무 갑순	제13대: 회장 권쌍희(16~17) 총무 영희
제 5대: 회장 권춘자(00~01) 총무 갑순	제14대: 회장 권옥순(18~19) 총무 정희
제 6대: 회장 권옥태(02~03) 총무 영래	2020~2021 코로나로 중단
제 7대: 회장 권성애(04~05) 총무	제15대: 회장 권영희(22~23) 총무 정희
제 8대: 회장 권문정(06~07) 총무	제16대: 회장 권정희(24~25) 총무 쌍자
제 9대: 회장 권숙이(08~09) 총무 장말남	

양로원 경로잔치 및 김장 봉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어 봉사활동도 거의 못하고 등산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부산종친회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2001년에는 종친회관 기금으로 300만 원을 협찬하기도 하고 복사기도 기증하고,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때는 부산종친회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부산에서 체육대회를 치를 때는 거금 300만 원을 협찬하기도 했다. 부녀회는 청년회와 청년회와 함께 정월 초 사흘날 이튿날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어르신들께 선물도 드리고 점심식사로 대접하며 송조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부녀회가 있기까지 부녀회의 역할도 컸지만 부산종친회 역대 회장과 임직원들의 각별한 애정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부녀회를 이끈 역대 회장과 총무는 다음과 같다.

현재 회원은 총 32명이다. 딸 27명과 며느리 5명이다. 이중 권옥태 전 회장은 80세로 최고 연장자이다. 권정희 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친회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안동권씨 대중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에는 본회의 정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권문으로 입적된 부(婦: 며느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부녀회 권상출 회원은 안동권씨 대중회 특별기 구인 부녀회총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 권상출 위원장과 부산부녀회를 중심으로 많은 안동권문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부녀회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부흥하고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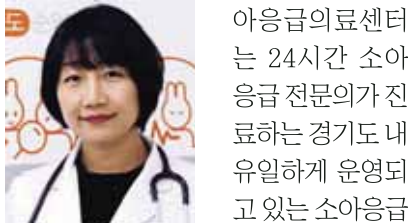
▲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가 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AMP)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및 제24회 서울대 AMP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권오형 대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인일보 감사, 안동권씨 대중회 부회장이며 능동장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아들과 딸 사위 등 가족 6명이 모두 회계사로 유명하다.

▲ 권희환 대한상사중재원(KCAB) 팀장이 12월 30일 해외투자진출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산업자원통상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팀장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면서 중재전문가로서 국제중재 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권 팀장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권순형 세종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가 세종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 유공자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사업 기획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박물관 야외 공간 개선 공사, 관람객 편의·놀이공간 확충 추진, 소방시설 및 노후화 시설물 보강을 통한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및 박물관 활성화, 백제의 계획도시, 나성동 등을 국립공주박물관과 공동 주최하는 등 세종시가 '박물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권재현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교수가 '2024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소아응급 진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분당차여성병원 소



아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소아응급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기도 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다. 권 교수는 지난 6년간 소아응급환자들의 소생을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이해' 등 소아응급환자의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 권웅 경기 일산소방서 서장이 2025년 1월 1일 제15대 서장으로 취임했다. 권 서장은 취임 이튿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안전한 일상을 위한 일산 만물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고양현충공원 충혼탑을 참배하며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권웅 서장은 소방청 차장실 비서관, 119구조과 긴급구조계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기획팀장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소방전문가다.

▲ 권지영 옥천군체육회 지도자가 지난해 충청북도체육회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지영 지도자는 장령산·향수호수길 걷기대회 개최와 각종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지도 등을 통한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했다.



▲ 권미아 2024년 11월 4일 단양군 소재골농장 대표가 '2024년 충북도 자랑스러운 직업인'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권 대표의 단양 특산물인 마늘과 수수를 활용한 전통 장류 제조 방식을 바탕으로 유기 가공식품을 생산하며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표창은 한 분야에 오랜 시간 헌신하며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해 온 '외길 직업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은 자에게 수여된다. 2013년 소세골농장을 설립했다.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 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댁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송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 자문위원 명단(8명) : 권중달(종사연구위원장), 권오훈(전 문헌편찬위원장), 권영하(수석부회장), 권철환(수석부회장), 권중근(파종협의회 회장), 권오신(좌윤공파 회장), 권기수(별장공파 회장), 권행완(간사, 대중회 편집국장)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